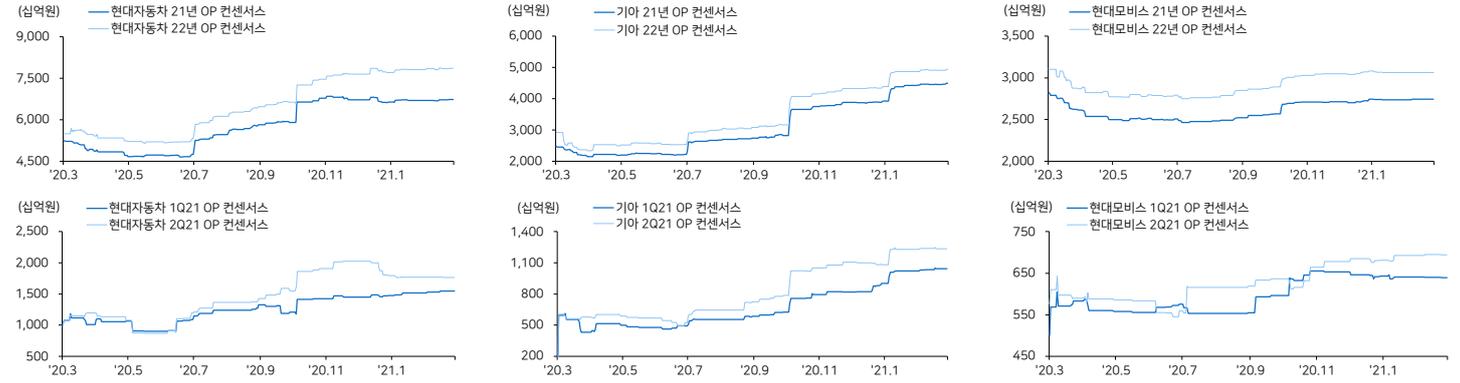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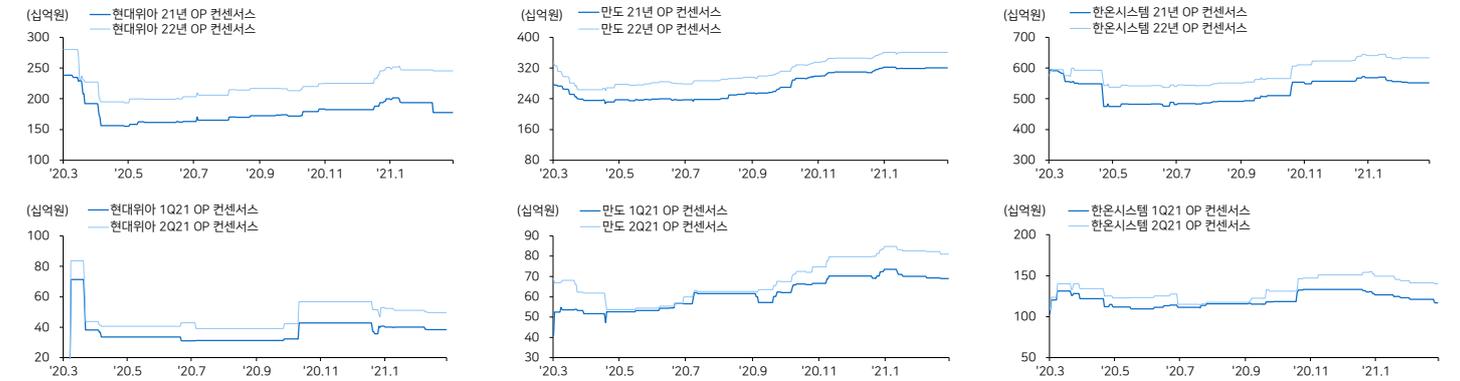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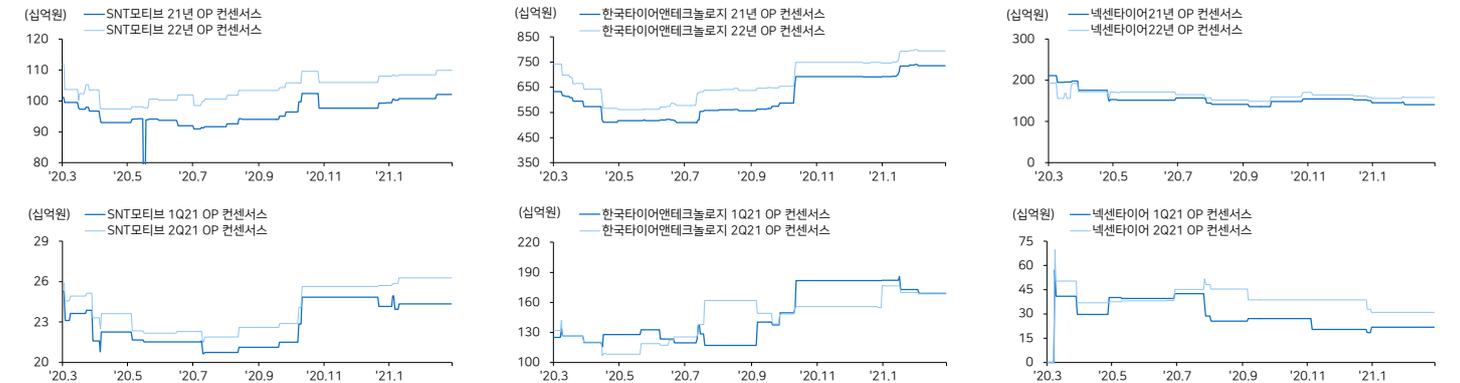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美서 '운전습관 연계 보험' 도입... '달린 만큼 낸다'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 Usage-based insurance)'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고객의 주행 정보를 분석해 안전 운전을 돕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판매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
<https://bit.ly/3sEIOn6>

현대차 합작사 모셔널, 2023년 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달린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 엔비티의 합작사인 모셔널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아이오닉5를 차세대 로보택시 차량 플랫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 주행 기능이 장착될 예정이다.
<https://bit.ly/20bxf6f>

크립 주행 '이게 된다?' 미래를 앞둔 현대모비스의 역발상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가 신개념 모빌리티 콘셉트 엠비전 X와 엠비전 POP를 처음으로 공개함. 운전, 주행, 주차 등에서 기존 자동차의 고정 관념을 깬 모빌리티 엠비전 POP의 경우 5년 이내에 대중화 할 계획.
<https://bit.ly/3drBkw0>

K-UAM, 2025년 상용화된다 (픽스넷뉴스)

정부는 2025년 UAM을 본격 상용화할 계획. 시정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교통관리 방식으로 시작해 2030년 성장기 가 오면 원격조종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035년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도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ttps://bit.ly/3m9Q0sx>

제네시스 전기차 콘셉트카 '제네시스 X' 첫 공개 (J뉴스)

제네시스가 전기차 기반의 차세대 콘셉트카를 친환경 자동차 메카인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올해 전용 전기차 출시를 공식화함. 제네시스 X 콘셉트카는 뉴욕, GV80, 에센시아, 민트에 이은 제네시스의 다섯 번째 콘셉트카.
<https://bit.ly/3cBMjNA>

기아 EV6 사전예약 1만5,000대 넘어... 첫날부터 '완판' (서울경제)

기아는 올해 EV6를 국내에서 1만3,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였지만, 하루 만에 국내 목표를 초과 달성함. 업계에서는 이에 EV6가 먼저 출시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사전예약 건수를 능가할지에 주목하는 중.
<https://bit.ly/3wqR9vQ>

전기차, 우리도 만든다...사오미, 10년간 11조원 투자 (한국경제TV)

미국 애플에 이어 중국 전자업체 사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함. 사오미는 신설될 자회사에 우선 15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뒤 향후 10년간 100억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
<https://bit.ly/3fv7NEz>

토요타, 후주에 수소 충전소 설립...현대차 '정조준' (THE GURU)

일본 완성차 브랜드 토요타가 후주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하고 현지 수소차 시장 공략에 나선. 현대차에 이은 두 번째 수소충전 거점으로, 한일 대표 기업의 후주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중.
<https://bit.ly/3rGrPO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